

『經書類抄』의 引用方式에 관한 小考

A Study on Quoted Style of The *Kyungseoryucho*

이 정 효 (Lee, Jung-Hyo)*

◁ 목 차 ▷

- | | |
|---------------------|--------------------|
| 1. 緒論 | 3.3 體制와 內容 |
| 2. 經部類書의 編纂 目的 | 3.4 板本의 特徵 |
| 3. 「經書類抄」의 刊行과 編纂體制 | 4. 「經書類抄」引用書와 表出方式 |
| 3.1 所藏現況 | 5. 結 論 |
| 3.2 編纂者와 刊行時期 | <참고문헌> |

< 초 록 >

조선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유서들이 만들어진 시기로 유학이나 경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서인 경부유서도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경부유서인 『經書類抄』의 편찬 목적과 인용방식 등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경서류초』는 유교경전의 주요 字句를 類別로 나누어 각 類에 해당되는 여러 경전의 내용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그 출전을 찾아볼 수 있게 한 책으로 주로 과거시험에 대비하고, 시문을 짓는데 편리하도록 편찬되었다. 편찬 체제는 전통적인 天地人 - 事物의 구조를 바탕으로 상위에는 人倫, 君道, 臣道 등의 유교적 항목으로, 하위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農事, 食生活, 器物, 草木 등에 관한 것들로 구성하여 물질적인 것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서류초』의 본문에 인용된 서적은 『易經』·『書經』·『詩經』·『禮記』·『儀禮』·『論語』·『孟子』·『中庸』·『大學』·『小學』·『孝經』·『國語』·『春秋左傳』·『爾雅』·『說苑』·『家語』로 모두 16종이며, 대부분 서명의 한 글자를 표출하였으나, 『시경』의 경우에는 편명을 표출하였다. 경전의 초출과 표출에 있어 여러 가지 결점이 지적되었으나, 조선시대에 과거를 준비하거나 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참고서라 할 수 있다.

要語: 경서류초, 유서, 인용, 유교경전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him1980@hanmail.net)

접수일: 2013년 5월 24일 최초심사일: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26일

<ABSTRACT>

The Joseon Dynasty was the era in which many kinds of encyclopedias have been published. The Kyungbu(經部) encyclopedia which specializes in Confucianism or Confucian classics has also been published in the same period. In this study, the research on the purpose of the compilation and the quoted style of the *Kyungseoryucho*(『經書類抄』) which is the typical Kyungbu(經部) encyclopedia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Kyungseoryucho*(『經書類抄』) is the book which is designed to search the contents of the various Confucian classics effectively and to find the source of them easily by dividing the main phrases of the Confucian classics. Also it was published to make writing the line of the poetry more convenient and to prepare *gwageo*(*pass the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y*).

Confucian topics like Humanity, duty of king, duty of vassal, etc. were on the priority list. And the daily life, farming, eating, objects, vegetation, etc. were below in ranked. So you could know that metaphysical and psychological things were respected than materials.

The quoted books in the body of the *Kyungseoryucho*(『經書類抄』) are a total of 16 kinds of books, such as Book of Changes(『易經』), Seogyeong(『書經』), Book of Odes(『詩經』), Yegi(『禮記』), Ritual(『儀禮』),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Mencius(『孟子』), Zhongyong(『中庸』), Deahak(『大學』), Sohak(『小學』), Hyokyong(『孝經』), Gukeo(『國語』), ZuoZhuan(『左傳』), Erya(『爾雅』), Seolweon(『說苑』), and Gaeo(『家語』). Mostly, the one letter of the tile was expressed but the title of the chapter was expressed for the Book of Odes. Even though several faults are pointed out in the extraction and the express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it could still be a valuable reference book for those who study Confucian classics or prepare *gwageo*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Key words: *Kyungseoryucho*, encyclopedia, quotation, Confucian classics

1. 緒論

朝鮮은 성리학 중심의 封建社會로 조선시대의 유교 경전은 학문적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根幹이요, 조선 문인의 삶은 항상 경전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政治·社會·文化的으로 유교와 경전이 차지하는 意味에 있어서는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유교의 사상과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유교 경전을 수입하여 이용하였고, 경전의 내용을 체득하고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유교 관련 연구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경전과 그 註釋書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類書들도 편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儒學의 경전을 崇尙하는 전통에 따라 경전의 내용이 科擧에 출제되었으므로 經典의 拔萃와 註釋을 모아 유별로 분류한 類書의 출판도 성행하였다. 유서는 인간의 역사에 수반되는 지식활동의 산물을 압축하고 분류하였으므로 유서의 내용은 출판 당시의 지식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대의 유서는 당시의 지식의 흐름과 틀을 반영하는 중요한 서적이다.

우리나라의 유서 이용은 중국에서 국가 주도의 대형유서가 편찬된 이후 중국의 유서를 수입하는데 의존하였지만, 이후에는 중국의 유서를 모방하거나 체제를 참고한 다양한 조선의 유서 편찬 사업도 진행되었다. 특히 『경서류초』는 조선시대 목록에 가장 많이 수록된 대표적 경부유서로 많은 유서 가운데서도 경학 혹은 성리학 관련 유서는 개인의 학습과 더불어 과거급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참고정보원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유학 혹은 경학 관련 참고정보원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용되었는가는 조선시대의 유서연구와 더불어 경학 혹은 과거제도 관련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많은 양의 경학 혹은 성리학 관련 유서가 현전하고 있으나 그 간행과 이용, 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에 편찬되거나 유통된 目錄과 文集, 類書 등의 문헌을 참고로 하여 『경서류초』를 비롯한 경부유서의 편찬 목적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경서류초』의 저자, 체제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 여러 판본의 편찬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셋째, 『경서류초』의 인용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經部類書의 編纂 目的

동아시아의 유서 편찬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문헌에서 類書의 시작을 魏 文帝의 勅命으로 완성된 『黃覽』으로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유서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유학 혹은 경학의 한정된 주제에 대한 유서인 경부유서의 발달에 관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唐代는 중국에서 많은 유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로 당대에 編纂된 書目을 통해서 경부유서와 관련된 자취를 찾고자 했으나 현존하는 最古의 목록서인 『隋書 經籍志』에는 아직 類書類에 대한 門이 설립되지 못했으며, 唐 玄宗의 명으로 편찬된 『群書四錄』과 개인목록인 毋熨의 『古今書錄』은 오래전에 逸失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唐代 초기부터 유서를 편찬하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藝文類聚』, 『北堂書鈔』, 『初學記』 등의 官撰 유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개인저작의 유서들도 많이 편찬된 시기이므로 적어도 이 시기 이후부터는 경부유서와 같은 전문적인 유서들도 편찬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또한 경부유서가 과거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국의 과거제도와 관련해 살펴보면 그 시점을 唐代 이전으로 볼 수 있다. 『新唐書 選舉志』에 “進士科起於 隋 大業 中, 是時猶試策。高宗 朝, 劉思立 加進士雜文, 明經填帖, 故爲進士者皆誦當代之文, 而不通經史, 明經者但記帖括。”¹⁾이라 하였고, 『舊唐書 選舉志』에 “明經者有但記帖括”이라

1) 唐代에 帖經의 응시자가 經書의 難語句를 뽑아 모아 노래와 같이 만들어 기억하게 좋게 만든 것. 澈경은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의 하나로, 경서의 한 부분을 모두 덮어가린 다음 그 가운데 1행만 보이고 전반에 대한 답안을 쓰게 하던 암기 시험임(『英祖實錄』, 65권,

하여 당시에 明經科를 시험 봄에 경문의 일부분을 잘라 제시하고 응시자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였으므로 명경과를 시험 보는 자들은 경문의 단구만을 잘 외우려고 했을 뿐이다. 따라서 唐代에는 이미 경문의 어구를 잘라 <帖括>을 만들고 수험생이 쉽게 외도록 하는 참고 서적이 존재하였고,²⁾ 이러한 참고 서적이 경부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경부유서로는 許穆의 「瑣說類纂」과 蔡之洪의 「性理管窺」를 들 수 있다. 「쇄설유찬」은 조선 중기의 학자 허목(1595~1682)이 聖賢의 도덕사상·왕도정치·윤리·성리 등에 관한 내용을 經史 외에도 唐·宋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대의 유가서를 집성하여 논한 책이다. 분류 항목은 乾道門·坤道門·君道門·臣道門·天官門·地官門·春官門 등 총 13문 501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를 대표할 만한 유서이나 단순히 경전을 인용하고 그 출전을 밝히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문을 나누어 항목별로 엮은 것이 특징이다.

「성리관규」는 채지홍(1683~1741)이 1738년(영조 14)에 간행한 것으로 太極·陰陽五行을 비롯하여 理氣·天命之性·氣質之性 등으로 구성하였고, 經書 중 성리에 관한 것과 宋儒의 理氣說 및 諸家の 주석을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편집하였다.

「쇄설유찬」과 「성리관규」는 성리학과 관련된 여러 설들을 類聚하여 자신의 견해를 붙인 유서들로, 허목은 詩·書·易·春秋·禮의 五經에 담겨 있는 원시 유학에 관심을 보였고 채지홍은 遂菴 權尙夏의 高弟인 江門八學士의 일원으로, 평생을 성리학의 강학에 주력한 인물이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경부유서 편찬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저작이 후학들에게 전해져 학문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이 외에 또 다른 경부유서들을 살펴보면, 「鏤板考」에 수록된 類書類 중 「經書類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3년 6월 3일 2번째 기사 註).

2) 周彥文, “論歷代書目中的制舉類書籍,” 「書目季刊」, 31(1)(1997. 6), 1-13. 可見早在唐代就有這類的參考書了.

(중략) 割裂五經四書句語 分門類彙 蓋經義拈括之書。

이것을 통해 「경서류초」가 五經四書의 語句를 門으로 나누어 類別로 모아놓고 경서의 뜻을 해석하고, 잘라놓은 문구를 보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經義는 경전 자체 혹은 경서의 뜻을 해설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과거 시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서류초」와 같은 경부유서는 과거 시험을 위해 편찬되거나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장각 소장인 필사본의 御制序文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략) 聖賢之千言萬語 布列于經傳之中 瞭然于千載之下 而又斷章蒐輯 剩成一編者 不幾近於捨其本而取其末乎 盍嘗思之人之聰明有限 而經籍至多於其綴詞之際 能自記誦引喻 不背本旨鮮矣 然則類抄之作 實學者燭幽之鑑 而不宜須去者 烏可視之末務而忽焉. (후략)

위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經傳에 聖賢의 말과 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어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것은 그 根本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취하는 嫌疑가 있으나, 사람의 聰明에는 한계가 있고 經籍은 너무 많아서 입으로 외고 다른 곳에 인용할 때에 경전의 本旨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 이 책을 만들어 학자들에게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되게 한다는 편찬 목적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경서유초」는 경전은 아니지만 여러 경전의 내용을 하나로 모아 만든 경서색인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경서 안에서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빨리 찾기 위한 참고 도서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修山集」 <韻府詩彙後序>에 자신이 만든 「彙集」에 관하여 서술한 것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³⁾

(전략) 그 후에 과거를 볼 때 책을 끼고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더욱 엄해졌으나

3) 其後科場禁挾冊。新令甚嚴。然獨許持韻考一冊。於是常日蠅頭之書。至欲剖腹而不可得。而吾獨手一卷。表而出之。邈卒執視而不知其中藏四卷書。及其應製。往往收其效。當此之時。如金縢之彙語。祝穆之事文。經史集說。類苑叢寶之屬。皆束之高閣而無所用其巧。雖欲與此較其長短。而不可得矣。(후략)

오직 韻考 한 책만은 허락해 주었는데, 이때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되는 책을 항상 눈앞에 두고 배를 가르는데 이르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나는 홀로 1권의 책을 만들어 걸로 드러나게 하였는데, 마침내 누가 보고서도 그 안에 4권의 책이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응제에 미처서 종종 효과를 보았는데, 이 당시 金縉의 「彙語」,⁴⁾ 祝穆의 「事文」·「經史集說」·「類苑叢寶」 등의 종류의 서적과 같은 것이었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經史集說」 또한 경부유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유서들과 함께 應製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서들이 科擧를 치르는데 있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과거에 필요했던 서적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彙語」의 경우 그 내용이 경학이나 성리학에 국한된 내용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체제와 형식이 색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그 편찬자가 확실하고 편찬연대를 짐작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색인 기능을 가진 유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경부유서의 편찬 목적은 과거시험에 필요한 참고도서로, 오늘날 2차 정보원에 해당되는 경학과 성리학의 索引書로 이용된 것이다. 현대 색인서의 사전적 정의는 ‘이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서적의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본문에 있는 사항용어들을 뽑아서 일정한 배열로 열거하고 그것이 있는 면의 페이지들을 표시해서 서적의 뒷부분에 붙여 놓은 것’⁵⁾으로 「경서류초」나 「휘어」의 색인 방식과는 다르지만, 검색의 편리성을 위하여 만들어 졌음은 동일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경서류초」의 편찬과 이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경전의 字句 중 난해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거나 자구의 뜻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고, 경전의 주요 字句를 외워 과거시험을

4) 「林下筆記」 18卷(文獻指掌編): 「휘어」 20권은 牧使 金縉이 찬술한 것이다. 金柱臣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휘어」 한 책은 여러 책에서 널리 취하여 남김없이 포괄하였는데, 行文 또한 구절을 지어 써서 창졸간에 考閱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비록 중국에 들여보내다 하더라도 과거 응시자나 문필가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니, 類書의 종주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곧 김진이 지은 것으로 塋소 門徒가 많았다. 찬술하여 편찬하는 데 이미 일생의 정력을 다 기울였고 또 門人들로 하여금 篇帙을 나누어 받아 연구하고 다듬도록 하여 수십 년이나 걸렸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면밀하다.” 하였다.

5) 네이버 지식사전.

치르거나 시문을 짓기 위한 참고서로 경전의 내용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出典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 「經書類抄」의 刊行과 編纂體制

3.1 所藏現況

조선시대 간행된 유서 중 「경서류초」는 유교 경전의 내용을 대상으로 분류한 색인 형식의 유서로, 여러 경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어구나 항목의 따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하거나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당시에 유통된 많은 판본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이하 KORCIS)을 통해 현재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들을 살펴보면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과 같이 현재 「경서류초」가 소장된 곳은 경기대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학진흥원, 전남대 등 전국의 여러 도서관과 기관에 널리 소장되어있으며, 版種도 木板本, 木活字本, 筆寫本, 傳陶活字本 등으로 다양하다.

<표 1> 「경서류초」 소장현황

所藏處	木板本	木活字本	筆寫本	傳陶活字本	未詳	合
경기대	4	3	1			8
국립중앙도서관	5	1				6
국학진흥원도서관	5					5
서울대규장각	1		1(御製)	1		3
연세대	1	1				2
원광대	3					3
장서각	1	1				2
전남대	5					5
충남대	1		1			2
기타	19	1			3	23
합계	45	7	3	1	3	59

모두 20여개 기관에서 59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목판본이 45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목활자본, 필사본 순이었으며, 1종의 진도활자본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KORCIS상에 판종을 입력하지 않은 것 3종은 모두 목판본으로 확인되어 목판본은 모두 48종이다.

3.2 編纂者와 刊行時期

한국의 類書 중에서 編著者가 밝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은 편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의 대상이 된 140여종이 넘는 유서 중에서 편저자가 밝혀져 있는 것은 몇 종에 불과하다.⁶⁾ 「경서류초」의 경우에도 여러 판본을 조사해보았으나 저자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序·跋文이나 刊記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 편찬된 여러 목록에서도 저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목록이 작성되었던 당시에 저자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는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한국고전종합DB의 「瓶窩集」 行歷에 ‘영조 9년(1733, 계축, 雍正 11) 81세, 11월 30일, 果川 客舍에서 졸하다. ○ 性理大全抄, 經書類抄를 만들었으나 마치지 못하다.’라고 되어있어 李衡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이형상의 생몰년(1653~1733)을 고려해 보면, 1730년에 간행된 「慶尙道冊板」에 「경서류초」가 이미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논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서류초」의 저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서류초」의 저자를 알 수 없고, 대부분의 판본에 정확한 간행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경서류초」가 수록된 조선의 목록과 기타 전적의 기록을 통해서 저자와 간행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경서류초」가 수록된 조선시대 목록과 문헌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6) 최환,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Ⅱ),” 『중국어문학』 제32집(2003).

<표 2> 「경서류초」 수록 목록과 문헌

目録名	刊行年	條	內容
慶尙道册板 ⁷⁾	英祖 6(1730)	尙州	經書類抄 卍
西序書目籤錄	正祖 16(1792)	類事類	經書類抄四本
鏤板考	正祖 20(1796)	子部 類書類	經書類抄三卷 不著撰人名氏割裂五經四書句語 分門類彙蓋經義括括之書 尙州收藏印紙三牒十二張
各道册板目錄	憲宗 6(1840)	尙州册板	容入紙五卷張十四張
嶺南各邑 校院書册錄	高宗年間 (1864~1895)	慶州府 > 西岳書院 ⁸⁾ 玉山書院 ⁹⁾	經書類抄四卷 經書類抄二卷
東國通志	高宗 5(1868)	藝文志 > 雜纂	經書類抄四卷
西庫藏書錄	高宗年間 (1864~1907)	類聚類	經書類抄一件四册
增補文獻備考	1903~1908	抄集類	經書類抄四卷
朝鮮圖書解題	大正 8(1919)	類書類	5卷3册 印本 經書の語句を摘要し部分類聚したるものにして天道・地理・人倫・君道・后妃・卜筮・治化・臣道・用人・出處・賞刑・軍旅・民生・農桑・貢賦・財貨・酒食・荒淫・音樂・祭祀・喪事・器用・宮室・畜物・草木・異端及人事部等に分つ又類抄附録として性行・進修・聖賢・道學・稽古等の目あり
信齋集	未詳	册二書 (答虞臣)	古文義句所出之聖賢。果皆言無不善矣。子見今選舉家所謂經書類鈔二册乎。其言皆無不善。非作册者能無不善。所類鈔皆經書故也。然類聚太甚。亦多未免露拙者。

위의 표와 같이 「경서류초」가 기록된 목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慶尙道册板」으로 책판이 남아있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저자나 권수에 관한 기록은

7)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3」(北京: 中華書局, 2004).

8) 조선 명종 때 문신인 이경(1512~1571)이 경주부윤을 지낼 때 지방 유림과 뜻을 같이하여 명종 18년(1563)에 세운 것으로 仁祖 1년(1623)에 국가가 인정한 사액서원으로 '서악'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9) 1572년(선조 5)에 경주 부윤 李齊閔과 도내 유림들의 공의로 李彦迪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하여 서원 자리를 정하고 廟宇를 건립하였다.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전국의 책판을 모아 정리하여 만든 「鏤板考」¹⁰⁾에는 간략한 기록이 있어 尙州에서 三牒十二張으로 간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경상도책판」과 마찬가지로 著者, 刊行年 등은 알 수 없다. 이후에 나온 「각도책판목록」과 「영남 각읍교원서책록」에서도 印紙數와 卷數만 알 수 있을 뿐 편찬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은 없다.

「奎章總目」에 부록되었던 「西庫書目」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에 수집 내지 移管된 韓國本을 분류 저록한 「西庫藏書錄」에도 「경서류초」가 있으나 卷冊數만 알 수 있을 뿐, 저자는 기록되어있지 않다. 조선시대의 목록이외에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는 1908년에 간행된 「增補文獻備考 藝文考」抄集類에 「경서류초」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또한 저자사항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서류초」에 대하여 기록된 목록이나 문헌은 그리 많지 않고, 그나마 저자와 편찬시기에 대한 기록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경서류초」 필사본 어제서문을 통하여 그 필사시기를 대략이나마 추정해 보면,

(중략) 舊本胡亂 不合觀省 爰命能書者 精寫一通 訖用製序 文弁之于首 壬申冬 十一月丙寅序.

라 하여 서문의 「壬申年 겨울 11月 丙寅日」에 이 서문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책을 필사할 당시에도 편저자에 관한 정보나 초기간본의 간행시기가 정확히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사본의 제작을 명한 임금이 누구인지, 서문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있지 않다. 이렇듯 「경서류초」에 관한 목록과 기록 어디에서도 저자에 관한 사항들은 알려진 바가 없어 未詳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위의 목록들을 통해 「경서류초」의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과 현존본의 간행 시기를 정리해 보면, 먼저 목판본 중 初刊本의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730년

10) 조선조 徐有榘 등이 正祖의 명을 받들어 1788년(正祖 12)부터 1796년까지 편찬한 해제목록으로 편성체제는 먼저 御撰·御定の 2門을 별도로 편성하고 四部分類法으로 분류했다.

만들어진 「경상도책판」에 수록된 판본이 많아빠졌다고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그 당시보다 수십 년 전, 적어도 50~60년 전인 1670~1680년 즈음에 이미 목판본이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상도책판」과 「누판고」에 기록된 책판이 동일한 것이라면, 3권2책의 목판본은 17세기 중후반 즈음에 간행되었을 확률이 높다.

현전하는 5권3책의 목판본(重刊本)은 간기에 ‘甲午仲秋重刊’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광대 소장본(AN030-73127)을 비롯한 타기판의 소장본은 대부분 甲午를 高宗 31년(1894)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활자본의 경우, 목판본이 많아빠져 새로운 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乙亥 字體 訓練都監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듯하다. 을해자체 훈련도감자는 壬亂 後 훈련도감의 자금 조달을 위해 훈련도감에서 만든 나무활자로 乙亥 宣祖 8년(1575)에 만들었다고 전해지나, 임란이 일어난 시기보다 앞서 만들어진 임난 후 훈련도감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는 달라, 임란 전 乙亥가 아닌 임란 후 己亥의 誤謬인것 같다.¹¹⁾ 을해자체 훈련도감자는 「鄉藥集成方」을 비롯하여 17세기 초부터 다양한 서적을 인출하였는데, 「경서류초」의 경우도 목판본이 간행된 이후에 판이 많아빠지자 다시 훈련도감자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목활자본이 간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는 17세기 초 이후가 될 것이다.

御製序文이 있는 필사본의 경우 서문에 “壬申冬十一月丙寅”을 단서로 실록에 기록된 기사 날짜를 통해서 임난 이후의 壬申年인 해를 보면, 仁祖 10년(1632), 肅宗 18년(1692), 英祖 28년(1752), 純祖 12년(1812), 高宗 9년(1872)으로 그 중에 冬11월에 丙寅日이 있던 해는 肅宗 18년(1692) 11월 21일과 英祖 28년(1752) 11월 9일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序文이 만들어진 때는 위의 두 해 중 하나이고, 이 당시 혹은 가까운 때에 어제서문이 있는 필사본이 완성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列聖御製 어디에서도 「경서류초」의 序를 썼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어제 필사본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쓰인 것인지 더 이상 정확히 고증할 수 없다.

11) 김수형, “訓練都監字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또한 중요한 문제는 만약 위의 두 해 중에 어제서문이 만들어지고, 필사본이 편찬되었다면, 1781년에 만들어진 「규장총목」이나 기타 이후의 書目, 혹은 列聖御製나 王의 文集 등에 「경서류초」의 御製에 관한 端緒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어제 필사본이 「규장총목」 이후에 것이라고 가정하고 「규장총목」 이후의 壬申년을 따져보면, 純祖 12년인 1812년과 高宗 9년인 1872년으로 좁혀지나 이 해의 11월에는 丙寅日이 없을 뿐 아니라, 순조의 문집인 「純齋稿」에도 「경서류초」의 서문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또 高宗年間(1864-1907)에 간행된 「西庫藏書錄」은 실제로 1865~1866년 즈음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¹²⁾ 여기에 수록된 「경서류초」는 類聚類에 있고, 御製類에 있지 않았다. 앞서 御製序文이 있는 필사본은 肅宗 18년(1692) 혹은 英祖 28년(1752)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후의 여러 목록이나 열성어제에 계속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경서류초」의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으로 추정되는 「경상도책판」에 기록된 판본은 17世紀 後期(1670년) 무렵에 간행되고, 3권 목판본은 17세기 중후반에, 목활자본은 17세기 초중반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御製序文이 있는 필사본이 肅宗 18년(1692) 혹은 英祖 28년(1752)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5권 목판본은 3권 목판본을 바탕으로 高宗 31년(1894)에 重刊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도활자본은 18세기 중반 이후가 될 것이다.

3.3 體制와 內容

類書의 편찬 체제는 크게 類編類書, 韻編類書, 字編類書, 數編類書, 時編類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¹³⁾ 「경서류초」의 경우 대분류에서 여러 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 類編類書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많은 유서들이 이러한 체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편찬 방식은 동양의 고대 사회의 학술분류의 방식과 유사하

12) 장백위, “朝鮮時代書目叢刊” 2에 「서고장서록」 해제 참고.

13) 최환,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Ⅱ),” 「중국어문학」 제32호(2003), 65-97 재인용.

고 할 수 있다. 분류방식에 있어 고대 사회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天地・自然과 皇帝에 관한 것이 가장 우위에 오게 되고, 다음으로는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유교적 倫理와 관련된 것들과 典章 制度,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성질의 것들이 하위에 오게 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天地人 - 事物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각 항목에 관한 서술 방식은 『類苑叢寶』에서와 같이 하나의 항목에 대하여 여러 경서와 고전에서 사물의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을 뽑아 나열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였다. 『鏤板考』의 기록에서와 같이 주로 오경과 사서에 수록된 구절들을 취하였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3권 목판본(BC古朝91-18), 3권 목활자본(BA032-72), 5권 목판본(e1032-97)의 목록을 살펴보면 모두 32部에 425類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여러 판본을 비교해보면 권・책 수의 차이는 있으나 類門 數와 내용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은 각 판본의 卷次와 류의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3권 목판본・목활자본・필사본과 중간목판본의 본문의 수록된 類門의 배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서류초」 판본의 항목 비교

5卷本		3卷 木板本 / 木活字本 / 筆寫本			
卷次	部	卷次	部	類	數
卷之一 (3)	天道	上卷 (6)	天道	天, 敬天, 慢天, 怨天, 天眷, 天譴, 天人, 育物, 天地, 日月, 日, 日蝕, 月, 月蝕, 河漢, 星辰, 雷震, 雨, 風, 雲, 露, 霜, 雪, 陰陽五行, 四時, 春, 夏, 季夏, 秋, 冬, 夜, 曆象占候, 禎祥, 灾妖, 弭妖, 祈雨, 雨水, 旱蝗, 感應, 火, 伐水	41
	地理		地理	地, 山嶽, 河海, 泉, 治水, 井, 濟涉, 都邑, 城郭, 遷都, 險固, 疆域	12
	人倫		人倫	父母, 事親, 養親, 親病, 諫親, 怨慕, 宗族, 家道, 孝悌友, 教誨承訓, 子孫父子, 兄弟, 夫婦, 婚姻, 婦德, 棄婦, 美女, 淫婦, 念夫, 色荒, 師弟, 反損益, 睦隣, 僕夫	24
卷之二 (5)	君道		君道	君, 君德, 君學, 文德, 威德, 贊頌, 卽位, 創業, 得天下(讓失), 臣附, 君臣(臣侍), 纘緒, 裕後, 幼冲, 顧命, 儲貳, 封建, 交隣, 庸君, 憂危, 諸侯, 巡狩, 朝覲, 濟難, 喪亂, 法古, 監戒, 治亂	28
	后妃		后妃	后妃, 嫡妻, 宮淫, 宮怨	4
	卜筮		卜筮	卜筮, 夢	2

5卷本		3卷 木板本 / 木活字本 / 筆寫本			
卷次	部	卷次	部	類	數
卷之二 (5)	治化	中卷 (6)	治化	學校, 惇典, 齊治, 治化, 行教, 風俗, 寬易, 英斷, 仁政, 政教, 政事, 命令, 法度, 勤, 逸, 謀猷, 隨宜, 更化, 富教, 禮樂, 文武, 功績, 黜陟, 儉, 奢, 紀綱	26
	臣道		臣道	臣, 事君, 盡職, 曠職, 勇退, 熱中, 賓師, 倚望, 老成, 宰相, 諫諍, 納諫, 拒諫, 詢訪, 擯, 召對, 使臣, 皇華, 牧民, 官寺, 人材	21
卷之三 (3)	用人		用人	用人, 命官, 慎簡, 筮仕, 辭, 失位, 齋志, 冒據, 好賢, 求賢, 待賢, 養賢, 用賢, 進賢退邪, 惡賢, 姦邪, 用邪, 去邪, 讒言, 搜逸, 隱逸	21
	出處		出處	出處, 進, 冒進, 退	4
	賞刑		賞刑	賞罰, 恩澤, 賞賜, 刑罰, 刑法, 慎刑, 赦宥, 訟, 獄, 罪辜	10
卷之四 (12)	民生		軍旅	將帥, 防禦, 師旅, 戰勝, 天討, 征伐, 攻取, 退敗, 班師, 偃武, 誓告, 勞役, 軍糧, 叛逆, 盜賊, 夷狄, 旌旗, 器械, 御, 馬政, 射藝, 弓矢, 畋獵	23
	農桑		民生	君民, 民心, 使民, 安民, 得民, 悅服, 養民, 賑民, 虐民, 民怨, 飢寒	11
	貢賦		農桑	農, 稼穡, 田畝, 耕耘, 豐年, 富裕, 荒歲, 貧窮, 蠶桑	9
	財貨		貢賦	貢賦, 賦稅, 重斂	3
	酒食		財貨	財貨, 工, 商	3
	荒淫	酒食	宴饗, 酒, 戒酒, 酗酒, 肴, 飲食, 采綠	7	
	音樂	荒淫	盤遊, 驕侈, 減德	3	
	祭祀	音樂	音樂, 歌舞	2	
	喪事	祭祀	祭祀, 宗廟, 郊社, 祭物, 餼, 典祀, 綴辭, 鬼神	8	
	器用	喪事	國恤, 死亡, 斂葬, 執喪, 短喪	5	
卷之五 (4)	畜物	下卷 (15)	器用	器, 几杖, 冠, 衣服, 帶, 履, 劍, 舟, 車	9
			宮室	宮室, 故宇, 臺池(苑囿), 繕役	4
	草木		畜物	鳥獸, 鳳凰, 鶴, 鴻雁, 隼, 鳥, 黃鳥, 鳩, 燕, 雉, 鷄, 衆禽, 獵禽, 麟, 虎, 鹿, 牛, 羊, 豕, 狐, 兔, 犬, 衆獸, 龍, 魚, 魚釣, 蟲	27
			異端	異端, 衆技	2
			人事	人事	禍福, 名譽, 毀訪, 取與, 辭受, 信誓, 壽考, 疾病, 憂傷, 涕泣, 居處, 行邁, 思歸, 阻隔, 送別, 相贈, 思念, 相見, 笑, 怨讐
附錄 (5)	性行		性行	德行, 清廉, 貪濁, 威儀, 剛柔, 忠(信怒), 聰明, 正直, 節, 言語, 言行, 慎言, 不慎	13
	進修		進修	修身, 安分, 修德, 好善, 知幾, 慎懼, 戒盈, 備忠, 慎終, 改過(悔), 慮微, 積中發外, 好惡, 觀人	14
	聖賢		聖賢	聖人, 君子, 儒士, 仁義	4
	道學		道學	道, 學, 仁, 義, 信, 禮, 智, 四德, 敬, 誠, 感通, 中, 勇, 心(意志), 性心, 氣, 命, 慾, 利, 經書, 史, 文質, 時	23
32	稽古		稽古	堯, 舜, 禹, 太康, 桀, 湯, 太甲, 紂, 文王, 武王, 成王, 稷, 契, 夔, 皋陶, 伊尹, 傳說, 周公, 夷齊, 伯夷, 柳下惠,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 閔損, 冉耕, 冉雍, 端木賜, 仲由, 卜商, 言偃, 顓孫師, 冉求, 宰我, 有若	37
	32	32		425	

먼저 3권목판본·목활자본·필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권과 중권은 모두 216항목으로 天道와 人倫, 君道, 臣道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어 天地人사상과 유교적 내용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권은 모두 118類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농사, 식생활, 제사와 기물, 축물과 초목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목판본과 마찬가지로 상권에는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항목으로 하권은 형이하학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부록에서는 상권 즉 儒敎와 관련되어 빠뜨릴 수 없는 여러 사항들 중에서 특히 성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稽考를 통해 聖賢들의 事蹟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 사용된 인용서적은 「易經」·「書經」·「詩經」·「禮記」·「儀禮」·「論語」·「孟子」·「中庸」·「大學」·「小學」·「孝經」·「國語」·「春秋左傳」·「爾雅」·「說苑」·「家語」로, 표출방식과 인용빈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각 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간목판본과 권차와 한 類의 순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간목판본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卷一은 天道에 관한 것, 卷二는 君道와 臣道, 卷三은 사람의 등용과 價에 관한 것, 卷四는 民生과 祭祀등에 관한 것, 卷五는 가축과 식물의 기름에 관한 것, 附錄에는 聖賢에 관한 순으로 차례하여 목활자본과 다른 것이 거의 없다. 3권 목판본·목활자본과 5권 중간목판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3권 목판본·목활자본 中卷의 賞刑部 다음으로 배열된 軍旅部가 중간목판본에서는 卷四 宮室部 다음에 순서하여 그 차서가 바뀐 것인데, 軍旅部의 순서가 바뀐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類門의 배열을 살펴볼 때, 軍旅部와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판본의 목록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3권 목판본과 5권 중간본의 목록에는 上卷 人倫部 棄婦의 류가 있으나 본문에는 없고, 3권 목판본 中卷 軍旅部의 御, 馬政의 류는 목록에는 있으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목활자본과 중간본, 필사본의

목록과 본문에 모두 그 내용이 있었다. 또 목활자본과 필사본의 경우 그 목록에 보면 下卷 畜物部에 ‘養’이라는 류가 있으나, 본문에는 ‘養’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 어구의 출처를 밝힌 부분 ‘宣公十二’ 다음에 ‘養’이 함께 기록되어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어구내용과 ‘養’과는 관련이 없으며, ‘宣公十二’를 표출하고 물고기를 기른다는 의미의 ‘養’을 추가로 음각처리한 후 만장 상에 나오는 정자산이 물고기를 선물 받아 하인에게 기르게 하였는데, 하인이 그것을 잡아먹은 일을 기록한 듯하다.

필사본은 목록에 각 項目아래 小字로 각 항목의 차례를 적어놓아 일일이 세어 보지 않아도 그 순서와 총 수를 쉽게 알 수 있다. 필사본은 목활자본과 동일한 목록의 순서를 갖고 있으며, 목활자본 목록에는 있고 본문에는 없던 ‘養’의 항목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항목에 대한 출전의 표기에 있어 목활자본에는 ‘宣十二’로 목판본은 ‘宣十三’으로 되어있는데, 필사본은 목활자본과 동일하게 ‘宣十二’로 되어있으며 이 외에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규장각 소장본의 어제 필사본은 목활자본을 바탕으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板本의 特徵

「經書類抄」는 KORCIS 검색 결과 56종으로 검색되었고, 검색되지 않은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 3종을 포함하면 총 59종으로, 목판본 48종, 목활자본 7종, 필사본 3종, 전도활자 1종으로 나타났다. KORCIS와 규장각에서 검색된 것만 59종으로 여기에 누락된 것들을 고려하면 현전하는 「經書類抄」의 종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판본을 대략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經書類抄」 판종별 형태사항

版本	書名 (版心題)	卷冊數	邊欄, 半郭의 크기	魚尾	行字數	所藏處
木板本	經書類抄 (經抄)	3卷2冊, 附錄	四周單邊, 半郭 18.0 × 13.8 cm	上下內向二 葉花紋魚尾	9行17字 註雙行	국중, 경기대
	經書類抄 (經抄)	5卷3冊, 附錄	四周雙邊, 半郭 18.3 × 13.0 cm	上下內向二 葉花紋魚尾	9行18字 註雙行	경기대, 국중, 단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木活字本 (乙亥 小字體)	經書類抄 (經抄)	3卷2冊, 附錄	四周單邊, 半郭 19.5 × 14.0 cm	上下內向二 葉花紋魚尾	9行17字 註雙行	국중, 연세대, 장서각
筆寫本	經書類抄	3卷4冊, 附錄	四周雙邊, 半郭 21.3 × 14.4 cm	上下內向三 葉花紋魚尾	8行17字 註雙行	규장각
傳陶活字	經書類抄 (經抄)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19.4 × 13.6 cm	上下內向二 葉花紋魚尾	9行17字	규장각

3.4.1 木板本

조선시대 목록에 기록된 「경서류초」 중 권수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은 「누판고」로 3권이다. 현전하는 목판본은 3권본, 5권본, 10권본 등이 있으나, 현전하는 3권본이 「누판고」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책의 상태로 보아 초기 책판의 후쇄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전하는 목판본의 대부분이 5권3책인 만큼, 여기에서는 3권본과 5권본(중간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권본은 국중소장본(BC古朝 91-18)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형태사항은 살펴보면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약 18.0 × 13.8 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로 每行 9行17字 註雙行이다. 이 판본은 인쇄에 사용된 책판 자체가 오래되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것이 많으며, 도각의 흔적과 판이 오래되어 계선이 끊어진 것이 확연히 나타난다. 이전 간행에 사용된 목판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인쇄한 후쇄본으로 보이며, 목록의 차례는 목활자본과 동일하나 본문이 동일하지는 않다.

나 인용서명 표출에 있어 많은 오류가 고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인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4.2 木活字本

현전하는 「경서류초」 목활자본은 3卷2冊으로 乙亥字體 訓練都監字本이다. 訓練都監字本은 光海君 3年(1611) 내사의 「內訓」·「大學諺解」, 同王 4年(1612) 인출의 「小學諸家集註」, 仁祖 11年(1633) 인출의 「鄉藥集成方」을 비롯하여 인출연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본들이 적지 않게 전래되고 있다.¹⁴⁾ 훈련도감자는 목활자를 만든 인력이 활자제조와 인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병사들이었던 만큼 한 눈에 봐도 字體와 劃이 바르지 못하고, 인쇄 상태도 정교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현재 훈련도감자본 「경서류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서울대 규장각,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장서각 등에 보존되어 있다.



<그림 3> 목활자본 목록



<그림 4> 목활자본 본문

14) 천혜봉, 「한국 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1).

한국전적종합목록¹⁵⁾과 KORCIS를 보면, 목활자의 경우 零本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3권2책으로 되어있다. 목활자본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약 19.5 × 14.0 cm이고,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로 每行은 9行17字 註雙行이다. 국중소장 목활자본(BA032-72) 권말에 소장자의 기록으로 보이는 글이 있으나 집안 관련 기록으로 本書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기타 본서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내용 또한 목판본과 동일하여 내용상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3.4.3 筆寫本

가장 적은 판본이 전래되는 필사본은 서울대 규장각과 경기대, 충남대에 소장되어있다. 이 중 규장각 소장본(奎 4602-v.1-4)은 유일하게 御製序文이 있는 3卷4冊의 필사본으로 매우 해정한 필서체로 필사되었는데, 목록의 순서와 본문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로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으로 보아 이 필사본은 목활자본(을해자체 혼련도감자본)을 底本으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필사본의 형태사항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약 21.30 × 14.4 cm이고,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每行 8行17字 註雙行이며 朝鮮總督府圖書館 印章이 찍혀 있다. 또 관심에는 권수만 표기되어 있을 뿐 관심체는 없다. 필사본의 경우 목판본이나 활자본과 달리 인용된 서적에 대한 뚜렷한 표시가 없고 다만 인용서를 한 글자로 초출하는 것은 중앙에 大字로 표기하여 한눈에 들어오고, 두 글자로 표출하는 경우는 小字로 표기하여 눈에 잘 띄지 않아, 글자의 오른쪽 상단에 작은 점을 찍어 인용서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필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판본에는 없는 <御製序文>이 있다는 것이다. <어제서문>에는 「경서류초」를 필사하는 이유와 그 사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다. 비록 어떤 왕이 언제 명을 내려 필사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왕명에 의해 필사된 만큼 당시에 이 책이 중요한 서적으로 이용된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5) 國學資料保存會, 『韓國典籍綜合目錄』(國學資料保存會, 1974).

3.4.4 傳陶活字本

전도활자는 도활자로 만들어져 전해진 것으로, 도활자는 오지활자라고도 하는데 진흙으로 빚어 만든 활자이다. 우리나라에 도활자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져 인쇄에 쓰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東國厚生新錄』에 통제사 李載恒이 黃海道 海州 兵營에 있었을 때 체험한 오지활자 만드는 법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오지활자는 李載恒(1678~1731)¹⁶⁾이 해주 병영에 있었을 무렵인 1729~1730년 즈음에 만들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⁷⁾

현재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전도활자본 『경서류초』(一 叢古 181.1-G998r)는 그 간행연도를 인조연간인 1623~1649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도활자가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전도활자의 바탕이 되는 목활자본이 간행된 시기를 고려해 보면 간사년 추정에 오류가 있는 듯하다. 혹은 목활자본을 전도활자본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도활자본의 목록과 그 내용이 목활자본과 동일하여 저본은 목활자본임을 알 수 있다. 전도활자본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약 19.4 × 13.6 cm이고,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로 每行 9行17字 註雙行이다. 글자의 크기나 모양은 목활자본과 거의 동일하나 인쇄상태가 더욱 좋지 못하고, 책이 오래되어 찢기고 변색된 부분이 많고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또 원래 五針眼으로 裝幀한 것으로 보이나, 망가진 것을 제대로 修理하지 않고 대충 꿰매놓았다.

위의 판본의 특징들을 토대로 계통을 살펴보면, 3권2책 목활자본과 필사본(어제), 전도활자본은 같은 계열이고, 3권2책의 목판본은 5권3책과 같은 계열이 될 것이다.

16) 1729년(英祖 5) 6월 14일 黃海兵使에 제수되었고, 이때 친히 글자를 써 陶活字를 만들었다. 黃海監司를 거쳐 1730년(英祖 6) 5월 18일 平安道兵馬節度使에 제수되었다.

17) 천혜봉, 『고인쇄』, (서울: 대원사, 2003).

4. 「經書類抄」 引用書와 表出方式

「경서류초」에 초출된 서적은 「누관고」에서와 같이 五經四書의 어구를 이용하여 만들었음을 밝힌 만큼 그 대강을 알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抄出된 경서의 정확한 종류와 表出方式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¹⁸⁾

「경서류초」에서는 하나의 분류 항목에는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경서 字句가 인용되고 있었는데 四書五經 뿐 아니라 13經에 해당되는 것들이 확인되었다. 또 13經에 포함되지 않지만 「春秋」 外傳에 해당되는 「國語」와 유학의 修身書이자 字書인 「小學」과 한나라의 劉向이 편찬한 「說苑」¹⁹⁾도 인용되었다. 「家語」의 경우에는 단 1차례만 초출되었고, 인용서 표출마저도 누락되었다.

「경서류초」에 사용된 인용서와 대표적 표출방식은 <표 5>와 같다.

본문에 사용된 인용서적은 「易經」·「書經」·「詩經」·「禮記」·「儀禮」·「論語」·「孟子」·「中庸」·「大學」·「小學」·「孝經」·「國語」·「春秋左傳」·「爾雅」·「說苑」·「家語」로 모두 16종이며 註를 부기하였다. 대부분 서명의 한 글자를 표출하거나 편명이 있는 경우에는 편명을 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분류 항목에 있어 모든 경서가 사용된 것은 아니나, 경서의 인용 순서는 대략 周易 - 書經 - 詩經 - 論語 - 孟子 - 禮記 - 左傳 - 中庸·大學 - 小學 - 國語 - 註 등의 순으로 초출되었다. 즉 四書三經과 같은 서적은 항상 먼저 초출하고 유교 경전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경전에 버금가는 서적과 國語와 같은 역사서, 그리고 註釋이 가장 나중에 초출되어 인용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18) 여기서 抄出은 경서의 내용을 뽑아내는 것으로 경서의 본문을 나타내며, 表出은 경서의 명칭을 드러내는 것으로 음각한 것을 의미한다.

19) 「說苑」은 고대의 제후나 선현들의 행적이나 일화 등을 수록하여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서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설명을 달리하는 여러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하였다. 이때 是非에 구애되지 않고 양쪽의 설을 모두 수록하였는데, 君道·臣術·建本·立節·貴德·復恩·政理·尊賢·正諫·法誠·善說·奉使·權謀·至公·指武·談叢·雜言·辨物·修文·反質의 20개 유문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표 5> 「경서류초」 인용서와 표출방식

	引用書名	方式	例
1	易經	卦名을 표출	乾, 大過, 臨 등
2	書經	篇名 전체를 사용하거나 한 글자만 표출	皐陶謨는 皐 / 太甲中은 太中
3	詩經	시의 제목 표출	七月, 出車, 大叔于田
4	禮記	書名の 한 글자를 표출	記 / 曲禮는 曲, 內則은 內
5	儀禮	篇名 표출	士冠禮
6	論語	篇名の 한 글자를 표출	學而은 而, 子路는 路
7	孟子	篇名の 앞 字에 '上·下'를 붙여 표출	梁惠王 上은 梁上, 告子章句 下는 告下
8	中庸	書名の 한 글자를 표출	庸
9	大學	書名の 한 글자를 표출	大 혹은 學
10	小學	書名の 한 글자 혹은 편명의 한 글자를 표출	小 / 明倫篇은 明, 立教篇은 立
11	孝經	書名の 한 글자 표출	孝
12	國語	書名の 한 글자 표출	語
13	春秋 左傳	篇名인 왕명에 해당 년을 붙여 표출	隱公 11年の 기록은 隱十一 昭公 5年の 기록은 昭五
14	爾雅	書名の 한 글자를 표출	雅
15	說苑	書名 표출	說苑
16	孔子家語	표출하지 않거나 한 글자 표출	家

초출의 자세한 예를 살펴보면, 먼저 「孟子」와 같이 편명에 상하가 있는 경우에는 편명의 앞 字에 上·下를 붙여 표출하였는데, 萬章上은 ‘万上’, 告子下는 ‘告下’로 표기하였다. 「中庸」, 「小學」, 「大學」, 「孝經」, 「禮記」, 「國語」, 「爾雅」은 書名の 한 字를 따서 ‘庸’, ‘小’, ‘大’, ‘孝’, ‘記’, ‘語’, ‘雅’로 표기하였는데, 소학과 예기의 경우 특정의 편명만은 편명의 한 글자를 사용하여 표출하기도 하였다.

「詩經」은 시의 제목을 따서 ‘七月’, ‘出車’, ‘大叔于田’ 등으로 표기하였고, 「周易」과 「儀禮」도 각 편명의 글자를 따서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書經」에서는 편명의 앞 字를 따서 皐陶謨는 ‘皐’로 君奭는 ‘君’으로, 酒誥는 ‘酒’로 표기하고 春秋의 좌전·곡량전·공양전은 편명인 왕명에 해당 년을 붙여 사용해 隱公 11年인 경우 ‘隱十一’로 표기하였다. 「論語」는 각 편명의 앞뒤 한 字를 따서 사용하

는데, 예를 들면 學而는 ‘而’, 子路는 ‘路’로 표현, 先進은 ‘先’, 爲政은 ‘爲’로 표기하였다. 또한 學而나 述而와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앞 뒤 글자 중 겹치지 않은 것을 따서 사용하였는데, 즉 述而는 ‘而’대신 ‘述’로 표현하여 혼란을 막았다. 그러나 ‘里仁’의 경우는 ‘里’나 ‘仁’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里仁’으로 표출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註釋의 경우 ‘註’로, 또 같은 경전의 내용이 연이어 반복 되는 경우에는 경전의 출처를 달지 않고, ‘上’으로 간략히 표시하였다. 그러나 13經 중 하나이며, 주대의 관제를 天官·地官·春官·夏官·秋官·冬官으로 나누고, 각 관 아래에 속관을 388관으로 나눈 「周禮」의 경우 인용서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관직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위와 같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인용된 서적이 四書 五經만이 아니라 당시 과거에 필요한 다양한 경전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전을 표기할 때에는 주로 책의 편명을 그대로 표기하거나 편명 중 한 글자만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복되는 글자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宣公 十二’에 해당되는 내용을 ‘宣公 十三’으로 표기한 경우처럼, 출전 표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참고서적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서류초」의 경전초출에 있어 잘못된 것들을 대략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경전이 반복 표출될 때 ‘上’으로 표기하는데, 이전의 표출이 두 개의 경전을 인용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경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
2. 경전의 내용을 잘못 초출한 경우
3. 경전의 명칭이나 편명의 명칭을 잘못 표출한 경우
例: [小學]의 ‘稽告’를 ‘嘉言’으로 표출
4. 경전의 명칭이나 편명의 명칭을 누락한 경우
5. 경전의 명칭이나 편명의 명칭을 혼용하여 다른 것과 중복되는 경우
例: [論語]의 學而篇을 ‘學’ 혹은 ‘而’ 표출하여 [大學]의 ‘學’과 혼동됨

例: [書經]의 武成을 ‘武’ 혹은 ‘武成’로 표출하여 [詩經]의 ‘武’와 혼동됨
6. 경서의 字句와 인용서 표출을 혼동하여 인용서적의 명칭 대신 경서의 자구를 음각하여 표출한 경우

위와 같은 오류 가운데서도 경전의 명칭이나 편명의 명칭을 잘못 표출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중간 목판본보다는 목활자본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목판본과 목활자본에서 동일하지 않게 나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경전의 내용을 익숙히 體得하지 못한 蒙士라면 책을 이용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結 論

조선시대의 대표적 경부유서인 『경서류초』의 편찬자와 편찬 목적, 편찬 체제, 판종별 편찬시기, 인용방식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경서류초』의 편찬 목적은 유교경전의 주요 字句를 類別로 나누어 과거 시험을 치르거나 시문을 짓기 위한 참고서로 경전의 내용을 빠르게 검색하거나 출전을 찾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편찬체제는 동양 전통의 유서 체제의 방식인 天地人과 人事物의 구조를 따라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 형이하학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뒤로 배열하였다.

둘째, 현존하는 『경서류초』의 판본은 목판본, 목활자본, 필사본, 전도활자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으로 추정되는 『경상도책판』에 기록된 판본은 17世紀 後期(1670년) 무렵에 간행되고, 3권 목판본은 17세기 중후반에, 목활자본은 17세기 초중반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御製序文이 있는 필사본은 肅宗 18년(1692) 혹은 英祖 28년(1752)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5권 목판본은 3권 목판

본을 바탕으로 高宗 31년(1894)에 重刊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편찬 체제는 전통적인 天地人 - 事物의 구조를 바탕으로 상위에는 天道와 人倫, 君道, 臣道 등의 유교적 내용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하위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農事 食生活, 祭祀와 器物, 草木 등에 관한 것들로 구성하여 물질적인 것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附錄에서는 여러 聖賢들의 事蹟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경서류초」의 본문에 인용된 서적은 「易經」·「書經」·「詩經」·「禮記」·「儀禮」·「論語」·「孟子」·「中庸」·「大學」·「小學」·「孝經」·「國語」·「春秋左傳」·「爾雅」·「說苑」·「家語」로 모두 16종이며, 대부분 서명의 한 글자를 표출하였으나, 「시경」의 경우에는 편명을 표출하였다. 하나의 분류 항목에 있어 모든 경서가 사용된 것은 아니나, 경서의 인용 순서는 대략 「周易」 - 「書經」 - 「詩經」 - 「論語」 - 「孟子」 - 「禮記」 - 「左傳」 - 「中庸」·「大學」 - 「小學」 - 「國語」 - 註 등의 순으로 초출되었다.

그 외에도 「경서류초」는 인용상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경전의 내용을 기술하고 출전을 밝히는 표출에 있어 가장 많은 오류가 있었으며, 목판 본보다는 목활자본에서 더욱 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서류초」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전의 초출과 표출에 있어 여러 가지 결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저자와 어제서문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조선시대의 경부유서를 대표할 만한 서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판본이 남아있고 어제서문이 있는 판본이 존재할 정도로 조선시대에 과거를 준비하거나 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참고서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經書類抄」.

네이버지식사전.

「林下筆記」 18卷(文獻指掌編)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國學資料保存會. 「韓國典籍綜合目錄」. 1974.

김수형. “訓鍊都監字本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3」北京: 中華書局, 2004.

周彥文. “論歷代書目中的制舉類書籍.” 「書目季刊」 31(1)(1997. 6), 1-13.

천혜봉. 「한국 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1.

천혜봉. 「고인쇄」. 서울: 대원사, 2003.

최환.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Ⅱ).” 「중국어문학」 제32집(2003).